

신경림 시의 장소 상실과 현실인식 연구*

- 『달 넘세』를 중심으로 -

조호주**

|| 차례 ||

- I. 서론
- II. 전쟁으로 인한 장소 훼손과 원한의 휴전선
- III. 수몰에 의한 터전의 상실과 실존 위기의 고향
- IV. 산업화에 의한 지역 소외와 파편화된 로컬 공간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경림의 『달 넘세』에 나타나는 ‘장소 상실’이 개인의 삶, 혹은 공동체의 삶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훼손된 장소와 장소를 상실한 인물들에게서 드러나는 신경림의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달 넘세』의 시편 중 연작시 형태로 쓰여진 작품에 주목하여, 연작시에 나타나는 ‘휴전선’, ‘수몰 지역’과 같은 특징적인 장소와 산업화에서 소외된 ‘로컬 공간’을 살펴보았다. 이들 장소는 이전에 신경림이 장소에서 보여준 인식과는 다른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신경림은 『농무』를 포함하는 초기시에서 장소를 통해 민중의 삶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한편 자본과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달 넘세』에서는 ‘휴전선, 수몰 지역, 로컬 공간’을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 훼손 및 삶의 파편화가 자행되는 장소로 파악하는 한편, 훼손된 장소로서의 ‘남북’, ‘고향’, ‘집’이 갈라

* 이 연구는 2018년도 교육부 국립대학육성사업 기초·보호 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지고 과편화되기 이전으로 회복됨으로써 다시 ‘하나’가 되기를 요청하는데, 여기에서 신경림은 장소 복원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시에 나타나는 장소의 변화는 신경림의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장소, 휴전선, 수물 지역, 로컬 공간, 터전, 고향, 정체성

I. 서론

자본주의사회에서 중심부에 들지 못하고 소외를 겪으며 살아가는 농민과 장꾼, 노동자와 도시 빈민의 구체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재현해온 시인 신경림은 1959년 문예지 『文學藝術』에 「낮달」, 「갈대」, 「석상」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다. 그는 첫시집 『農舞』(월간문학사, 1973)를 펴낸 이후, 『農舞』 증보판을 포함한 열한 권의 시집과 여섯 권의 시선집, 그리고 네 권의 평론집과 십여 권의 산문집 등을 발간했다. 그는 그동안 시인으로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평론가, 문학활동가, 민요연구가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왔다.

신경림의 시세계는 농민과 노동자, 도시 빈민과 같이 자본주의사회의 변두리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약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중문학이라는 점과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식인으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삶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사람을 좋아하는 기질 때문에 문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사람을 만나는 공부야 곧 문학 수업¹⁾이었다고 한 신경림의 고백은 그가 민중문학의 길을

간 것이 자연스러운 행보였음을 짐작케 한다. 신경림의 “민중시라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천성적인 것이라고 봐야겠”²⁾다고 한 정희성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보다 지니지 못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관심을 민중문학으로 승화시켰으나 신경림의 시문학은 작품이 갖는 의미나 문학사적 위치에 비해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³⁾ 이러한 가운데 신경림의 시세계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일부 연구자들은 신경림 시에 나타나는 공간과 장소에 주목했는데, 이는 신경림의 시에 나타나는 공간이 민중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호로 파악한 결과다.⁴⁾ 공간은 사회 내에서 사회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간적 관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공간은 비록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이후의 사회적 행위를 위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행위·사회적 권력·사회적 과정의 원인이라기보다 그 결과⁵⁾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신경림 시에 나타나는 민중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민중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의미한 특징들을 드러내주는 기호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간 연구는 신경림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신경림, 『사람사는 이야기』, 세림, 1995, pp.6-7.

2) 구중서 외 엮음, 『신경림 문학의 세계』, 창작과비평사, 1995, p.35.

3)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석사논문 28편, 박사논문 7편이다.

4) “우리의 삶은 공간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공간 또는 장소와 우리의 삶은 불가분이다. <…>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그곳을 장소로 만들어 간다. 어떤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자신이 그 집안의 일부이고, 그 사회의 일부이며, 그 직장의 일부임을 확인받는다. 공간과 장소는 그렇게 인간 삶의 본질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다.” 전종환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사회평론, 2017(개정3판), p.26.

5) 낭왕, 이진호·최석호 역,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p.191.

인문지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간과 장소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공간이 추상적인 개념인 반면 장소는 인간의 생활 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공간으로서 의미, 실제 사물, 계속적인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장소는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의 중요한 원천이며 때로는 사람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느끼는 인간 실존의 심오한 중심이 된다.⁶⁾ 민중문학으로서의 신경림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공간과 장소를 통해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적 의미까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공간은 장소가 된다.’⁷⁾는 이-푸 투안의 발언처럼 공간과 장소는 의미상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공간에 인간의 구체적인 행위가 개입되면 공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발생되고, 의미가 발생하는 순간 그 공간은 장소의 의미를 갖게 된다.⁸⁾ 따라서 인간의 구체적인 행위와 일상 속에서 인간이 빚어내는 삶의 세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공간 연구뿐 아니라 장소 연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경림 시에 나타나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받은 공간은 민중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농촌, 장터, 공사장, 산동네 등이다. 이들 공간은 신경림의 시가 내장하고 있는 시의 정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을 정직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민중의 삶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의

6)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p.288.

7) 이-푸 투안, 구동화·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p.124.

8) 인문지리학자들은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쉬운 예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공원이나 가로수 길은 그곳에 산책 나온 사람에게는 유희의 ‘공간’이고, 소통의 ‘공간’이지만, 헤어진 연인과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곳은 추억의 ‘장소’이다. 전중환 외, 앞의 글, p.35.

신경림 시의 공간과 장소 연구에 대한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경림 시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대표적 논의에는 강정구·김종희⁹⁾, 박순희·민병욱¹⁰⁾, 조효주¹¹⁾, 송지선¹²⁾, 유병관¹³⁾, 고재봉¹⁴⁾ 등이 있다. 이들 논의는 신경림 시에 나타나는 장소가 민중의 삶과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내주는 기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신경림 시에 나타나는 장소들이 내장하고 있는 특징적 의미들을 밝혀준 선행연구들은 신경림의 시세계를 밝히는 데 기여한 바 크다. 다만, 연구의 텍스트가 대부분 『농무』와 『남한강』 등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 대상으로서의 장소가 농촌, 장터, 도시 변두리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분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휴전선,

-
- 9) 강정구·김종희, 「문학지리학으로 읽어본 신경림 문학 속의 농촌 -1950-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56집(16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pp.5-23. 강정구·김종희, 「문학지리학으로 읽어본 1980년대 신경림 시의 장소」, 『語文學』제117집, 2012, pp.315-333.
- 10) 박순희·민병욱, 「신경림 시의 장소 연구 -시집 『農舞』를 중심으로」, 『배달말』제54집, 배달말학회, 2014, pp.251-275.
- 11) 조효주,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노래』에 나타나는 장소와 장소상실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제7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pp.241-266.
- 12) 송지선, 「신경림의 『농무』에 나타난 장소 연구」, 『국어문학』제51집, 국어문학회, 2011, pp.113-139; _____, 「신경림의 『농무』에 나타난 장소 연구」, 『국어문학』제51집, 국어문학회, 2011, pp.113-139; _____, 「신경림 시의 로컬리티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13; _____, 「신경림의 『쇠무지별』에 나타난 로컬리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57집(16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pp.145-159; _____, 「신경림 시에 나타난 장소 재현의 로컬리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64집(18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pp.161-180.
- 13) 유병관, 「신경림 시집 『農舞(農舞)』의 공간 연구」, 『반교어문연구』제31호, 반교어문학회, 2011, pp.218-239.
- 14) 고재봉, 「신경림의 『농무』 계열 시에 나타난 장소성과 축제의 의미」, 『문학치료연구』제4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pp.267-293.

국가정책에 의해 수몰된 지역, 그리고 산업화에 의해 소외된 로컬 공간을 살펴봄으로써 신경림 시에 나타나는 장소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확장하고자 한다.

신경림의 『달 넘세』¹⁵⁾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장소들이 내장하고 있는 의미를 보다 명징하게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학문의 하나인 지리학¹⁶⁾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 지리학자 이-푸 투안과 에드워드 렐프¹⁷⁾가 설명하는 지리학의 이론은 『달 넘세』에 나타나는 공간과 장소의 구분은 물론 각 장소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들을 읽어내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되어줄 것이다. 특히 렐프의 장소 이론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장소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달 넘세』 인물들의 삶과 내면의식을 파악하는 데 유익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지리학자들이 공동 저술한 『인문지리학의 시선』¹⁸⁾도 일부 참고할 계획이다. 이 연구서는 장소와 인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삶이란 그것이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며, 장소가 인간의 삶과 정상성, 나아가 자아 정체성까지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요소¹⁹⁾이므로 『달 넘세』에 나타나는 장소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되어줄 것이다.

15) 『달넘세』는 민속놀이의 하나로 달을 여성의 생식력에 비유하여 풍년을 기원하거나, 마을에 갓 시집온 새댁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공동체 의식에서 유래되었는데, 여기에서 ‘달’은 지구 위성인 달을 가리킨다. 신경림은 ‘달 넘세’가 ‘달을 넘어가자’는 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일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신경림, 『달 넘세』, 창작과비평사, 1985, p.13.

16) “지리학은 백과사전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담아내는 학문이다.” 전종환 외, 위의 글, p.26.

17)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18) 이-푸 투안, 구동화·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19) 전종환 외, 앞의 글, p.33.

본 연구는 신경림의 『달 넘세』에서 특징적인 장소를 보여주는 연작시 형태의 시편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작시들은 각각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수몰 지역’, 산업화 정책에 의해 소외된 ‘로컬 공간’²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이 세 가지 유형의 장소들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과 장소 상실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소의 상실이 개인의 삶, 혹은 공동체의 삶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파악한 뒤, 장소 상실을 통해 드러나는 신경림의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초기시의 장소(농촌, 장터, 도시 변두리, 길 등)와 『달 넘세』 장소(휴전선, 수몰 지역, 로컬 공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신경림 시에 드러나는 장소 변화는 물론 장소 변화와 (신경림의)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 변화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전쟁으로 인한 장소 훼손과 원한의 휴전선

『달 넘세』에는 ‘휴전선’을 직접적인 소재로 삼고 있는 다섯 편의 작품이 연작시 형태로 실려 있다. 이 작품들에는 “휴전선을 떠도는 혼령의 말” 등의 부제가 달려 있다. 이 부제를 보면 이들 연작시의 언술 행위의 주체가 휴전선에서 주변에서 떠도는 혼령들이며, 그들의 발언이 시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집 한 권에 동일한 부제를 단 시가 여러 편 실려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며, 이는 시인이 이 시집을 통하여 특정

20) 이 글에서는 ‘줄포’, ‘아우라지’ 등과 같은 지역의 장소들을 묶어서 표현할 때에 한해 지역의 장소를 ‘로컬 공간’으로 부른다.

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의도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신경림에게 있어 ‘휴전선’이란 무엇이며, 그의 시에서 휴전선이 어떤 장소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다면 연작시들이 내장하고 있는 시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휴전선은 한국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했던 미소(美蘇) 양국의 이해와 군사 지휘권을 쥐고 있던 미국의 끈질긴 무마 활동에 따른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 목인 성명에 의해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남과 북으로 분할된 경계선으로서, 기능적으로 보면 이 경계선은 서로 다른 두 이념이 대치하고 있는 이념적 경계이다.²¹⁾ 그러나 신경림의 『달 넘세』에 나타나는 휴전선은 이념적 대치와 갈등 상태의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²²⁾ 다만, 이곳은 분단된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전쟁의 역사와 분단된 현실에 대해 자각하게 만드는 장소이자 잘못된 과거에 대한 환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훼손된 장소이다. 이곳에 깊이 새겨진 환과 원망의 기억은 휴전선이라는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

기억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쉽게 사라져버리면서도 동시에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 넘세』의 주체에 게 ‘휴전선’이라는 장소는 사라지지 않는 기억을 가진 대상이 된다. 그것은 휴전선이 단순히 기억 속에 저장된 하나의 정보로서가 아니라 실제적 체험과 그것의 결과로 남아 있는 분명한 ‘흔적’이기 때문이다. 아스만은 기억

21) 임덕순, 「한국 휴전선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제7권 1호, 대한지리학회, 1972, pp.4-10 참고.

22) 강정구·김종희는 휴전선을 떠도는 혼령을 다룬 시편에서 이념적인 경계를 뒤흔들어 좌우 이념의 차이를 연기시키고 무화시킨다고 설명한다. 강정구·김종희, 앞의 글, p.321.

23) 일라이아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p.337.

매체의 변화를 설명하는 글에서 세상에는 텍스트나 유물과 같이 문화적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증거들도 있으나 보존을 위한 증거가 아닌 삶의 ‘흔적’으로써 증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버려진 매트리스의 속옷과 같은 쓰레기가 그 매트리스를 사용했던 사람의 일상을 증거하는 정보은행이고, 이 매트리스가 가진 흔적으로써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 흔적들은 유물 같은 전승물들이 말해주지 않는 일상생활을 전해준다²⁴⁾는 것이다. 아스만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텍스트나 유물 같은 기억매체가 아닌 종잇조각이나 쓰레기 같은 흔적을 통해서도 과거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휴전선에 남아 있는 과거의 ‘흔적’들은 누군가의 구체적인 일상을 증거해주는 사물이 된다. 「새벽 -휴전선을 떠도는 혼령의 대화」를 보면 “휴전선 부근/ 경지정리로 파헤쳐진 무덤”과 웅성거리는 “두개골들”이 등장한다. 무덤과 두개골은 현재 휴전선 부근에 남아 있는 전쟁의 흔적으로서 존재하며, 여기에는 과거의 기억이 새겨져 있다.

보이나, 저 사람들이 보이나./ 화해의 시대라고 야단들을 치는군./ 배에 기름 끼면 간사한 피만 늘지./ 죽도록 고생한 자들까지 왜 덩달아 맞북 치지./ 늙고 지쳤으니까./ 암, 늙고 지쳤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함께 앉았으니 이것이 화해인가./ 서로 쏘고 찌른 상처 매만지며 함께 앉았으니까./ 아닐세, 우린 서로 미워한 일 없지./ 아닐세, 우린 옛날로 돌아가면 되지./ 자, 떠나세, 동이 트네./ 자, 떠나세, 날선 낮 하나씩 들고./ 자, 떠나세, 원수를 찾아서.// —이른 새벽 휴전선 부근/ 경지정리로 파헤쳐진 무덤 속에서/ 두개골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 「새벽 -휴전선을 떠도는 혼령의 대화」 전문

위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의 남북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휴전협정 이후 남북 간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는 상태가 유

24) 일라이다 아스만, 앞의 글, p.288 참고.

지되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까지는 북한 게릴라의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지구 침투사건 등이 연달아 일어났고 군사적 긴장 상태가 크게 고조되었다. 이후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된 남북대화는 1973년 북측의 대화 거부로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다시 대화의 접점을 찾기 시작했다. 1984년 남한의 수해에 대해 북한의 적십자가 구호품 제공 의사를 밝히자 전두환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신경림이 『달 넘세』를 발간한 1985년에는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이산가족과 예술단의 교환 방문과 경제회담을 여러 차례 열기도 했다. 위의 시에서 언급하는 “화해의 시대”는 이와 같은 남북 간 대화 분위기 및 화해 분위기와 연관성이 깊어 보인다. 남북한이 만들어가는 대화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남북의 화해는 물론 통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벽 -휴전선을 떠도는 혼령의 대화」에서 복수의 발화자로 등장하는 “혼령”은 “화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혼령들의 발언에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혼령들은 말한다. “화해의 시대라고 야단들을 치는군./ 배에 기름 끼면 간사한 피만 늘지.” 이 말에 의하면 현재를 “화해의 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배에 기름”이 낀 사람들, 곧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지배계층이다. 한국전쟁 및 휴전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사람들, 즉 전쟁 중 죽은 군인들과 이념의 갈등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정작 남북 간 “화해”의 자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렇다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떠들썩한 분위기로 포장된 “화해”는 배에 기름 낀 사람들의 “간사한 피”에 의해 조작된 평화에 불과하다. 아직도 휴전선 부근에는 “서로 쏘고 찌른 상처” 투성이의 주검들이 널려 있고, 여전히 분단 문제, 통일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남북간 대립

이 평화로 위장되고, 평화를 얻어야 할 영혼들은 그 주검조차 안녕치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화해”이다.

거짓된 화해의 제스처를 비판하던 화자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의 요란한 화해의 제스처보다 남과 북이 옛날로 돌아가 본래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옛날로 돌아가는 방법은 “원수를 찾아서” “날선 낫”으로 베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원수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날선 낫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화자의 발언 요지가 우리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은 존재가 곧 우리의 원수이며, 그 원수를 베는 것이 곧 옛날로 돌아가는 길임을 맥락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옛날”이라는 시간을 되찾으려면 무엇보다 남북으로 분리된 두 공간을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두 공간 위에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화자는 공간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1연이 “원수를 찾아서”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볼 때 당장은 분단의 원흉인 원수를 찾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이 시에서 둘째 연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연은 혼령들이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나 2연의 화자는 혼령들 중의 한 사람이 아닌 제3의 존재(시적 주체)로 등장한다. 이 화자는 1연에서 혼령이 드러낸 원함과 상처의 장소인 휴전선이 아닌, 좀 더 객관화된 장소로서의 ‘휴전선’을 제시한다. 휴전선은 전쟁으로 인해 이미 장소감이 상실된 곳이며, 영혼들이 머무는 무덤조차 파헤쳐진 훼손된 장소이다.²⁵⁾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산자의

25)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감’의 개념을 설명하는 글에서 ‘방향 감각 같은 단순한 인지에서 서부터, 다양한 장소의 정체성에 공감하는 능력, 인간의 실존과 개인적 정체성의 초석으로서 장소와 심오한 연관을 맺는 것에 이르기까지, 장소감이란 인식의 범위는 대단히 넓’으며, ‘장소감은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해서도 정체감의 원천이 된다.’고 했다(에드워드 렐프, 앞의 글,

위로나 죽음을 연민하는 마음조차 없이 ‘경지정리’로써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외면당한 소외공간이다. 여기에서 들리는 혼령들의 소리는 휴전선이 장소성을 상실한 곳임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혼령들의 원한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실재화 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웅성거리는 소리”는 “화해의 시대”를 외치는 거짓된 목소리와 대비를 이루면서 거짓과 위선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비판을 통하여 남북 간의 진정한 화해란 힘 있는 자들의 정치적 소가 아니라 ‘우리’²⁶⁾ 모두의 참여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의 참된 화해에 대한 요청은 다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pp.145-150 참고). 집이나 고향, 지역이나 국가 등과 같이 한 공간이 장소가 되고, 그 장소만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공간과 인간이 일상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휴전선’은 이미 “혼령”들에게 훼손된 장소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휴전선에 대해 장소감을 가질 수 없으며, 전쟁 전에 주민들이 살아왔을 그 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장소성 역시 상실되었기에 ‘휴전선’의 정체성은 현재의 혼령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다고 하겠다.

- 26) 신경림 시에서 ‘우리’의 의미는 여타 민중시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의미와 다른 측면을 갖는다. 조효주의 설명에 의하면, 신경림 시에 등장하는 집합적(혹은 집단적) 주체로서의 ‘우리’는 모두 피지배계급으로 정치와 사회, 자본 등에서 소외된 체로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러한 삶에서 영구히 탈출하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에 갇힌 형태로 등장한다. 이러한 삶으로 인해 신경림 시의 민중들은 대부분 울분과 분노를 품고 있는데,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는 시적 주체 대부분은 개별적 주체가 아닌 ‘우리’라는 집합적(혹은 집단적) 주체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적 주체가 집합적인 ‘우리’로 나타나는 경우는 대체로 무기력하고 수동적 태도를 지닌 시적 주체로 등장하며, 반면 집단적 주체인 ‘우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저항성을 띤 시적 주체로 등장한다고 설명한다(조효주, 『신경림 시의 주체와 현실』, 역락, 2018, p.29 참고). 「새벽」에서도 집단적 주체로서의 ‘우리’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새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의미 역시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는 집단적 주체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 이 춥고 어두운 땅 속에 묻혀서/ 또는 구만리 적막한 황천을 떠돌며/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고향땅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발자국소리 그 노랫소
리 듣기까지/ 형제들의 그 큰 춤 보기까지/ 나는 어머니가 계신 고향땅에 돌아
가지 못합니다.

- 「어머니 나는 고향땅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휴전선을 떠도는 혼령의 말」 부분

이 시는 38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체로 긴 시편에 속하나 내용에 따라 도입, 중간, 결말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 부분과 결말 부분은 발화자인 혼령이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임을 어머니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간 부분에서는 화자 자신의 바람과 그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간 부분은 다시 세분화하여 세 가지의 바람, 즉 “발자국소리”를 듣는 것, “노랫소리”를 듣는 것, “큰 춤”을 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비록 연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용상 여러 개의 이야기로 짜여져 있어 그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화자가 “어머니”를 호명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1연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마치 여러 개의 연으로 만들어진 듯한 이런 구조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고 또 주제가 강조되는 효과를 이끌어내지만, 독자가 시의 구조를 잘 짜여진 정형화된 형식으로 받아들일 경우 시가 딱딱하고 고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잘 갖춘 구조를 통하여 시적 주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화시키는 데 성공한 듯 보인다. 이런 구조 속에 담겨 있는 휴전선의 의미와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적인 시편을 읽으며 살펴보도록 한다.

화자가 묻혀 있는 ‘지금, 여기’ 휴전선은 화자 자신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장소이며, 과거에 탱크 소리 군홧발 소리, 포탄 소리와 총탄 소리가 들렸던 전쟁터였다. 화자에게 이 장소는 특별한 기억과 감정을 느끼게 하

는 곳이 아니라 오직 고통과 원한으로 점철된 곳이다. 화자는 죽어서도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향땅에 묻히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화자에게 휴전선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한(恨)의 장소이다. 이 시에서 화자가 장소감을 가지는 곳은 자신이 현재 위치해 있는 휴전선이 아니라 과거의 삶이 새겨진 장소로서의 “고향땅”이다.

그런데 화자는 자신의 고향땅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유가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자국소리 그 노랫소리 듣기까지/ 형제들의 그 큰 춤 보기까지”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발언에서 화자 자신의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자신의 바람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읽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적 발언으로 인해 시의 의미는 쉽게 표층에 노출된다. 화자는 남북으로 갈라진 형제끼리 서로 만나 얼싸안고 통곡하고, 형제들의 큰 춤과 큰 노랫소리로써 “우릴 속인 자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속인 자들을 “바다 밖 멀리” 내쫓아야 한다는 발언을 보면, 화자가 적대시하는 대상은 외세, 즉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고 결국 전쟁을 치르게 만든 강대국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새벽」에서 내부에 있는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을 원수로 인식한 것과는 달리 이 시에서는 우리나라 바깥에서 들어온 외부 세력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큰 춤과 큰 노랫소리로 하나가 되어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이뤄냈을 때 외세를 쫓아낼 수 있고, 잃어버렸던 “고향”이라는 장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장소를 회복하는 것은 결국 남북의 형제가 하나가 되어 외부 세력을 몰아낼 때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신경림은 한국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

는 전쟁으로 인해 삼촌과 친구와 마을 사람들을 떠나보냈으며, 1·4후퇴 당시에는 미군을 따라 다니며 하우스보이 노릇을 하기도 했다.²⁷⁾ 그러한 경험 때문인지 그의 시에 나타나는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발언들이 유달리 어조가 강하고 자기 신념에 차 있는 것처럼 읽힌다. 신경림의 적지 않은 시편들에 남북 화해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 그는 산문에서도 통일과 통일지향 문학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많은 평론가들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복치고 장구를 친 통일문학, 통일지향의 문학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통일이여 어서 오라’는 식의 구호 비슷한 쪽입니다. 내용이 별로 없죠. 통일이 안 되어서 문제다, 통일이여 어서 오라, 그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지향의 문학이라고 했죠. 모두 통일 타령이니까

또 한 가지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따위의 타령조조. 고향타령의 시, 소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래서 통일지향으로 보이긴 하되 재미는 하나도 없죠.²⁸⁾

북한땅을 남의 땅이 아닌 내 땅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생각을 갖는 일도 그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²⁹⁾

신경림이 밝힌 생각을 정리해보면, 오늘의 문학이 통일지향의 문학이어야 하나 통일에 대한 구호나 고향타령조의 문학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북한

27) 전쟁이 일어난 이후 광복로 일하던 삼촌이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젊은 나이에 죽은 일(신경림 외, 『신경림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p.46), 꿩잡이를 하며 놀던 친구가 의용군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은 일(신경림, 『다시 하나가 되라』, 어문각, 1986, p.13), 전쟁 중에 친구가 아버지를 따라 북으로 간 일(신경림, 『한밤중에 눈을 뜨면』, 나남, 1985, pp.87-90), 마을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 헌병들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경자, 『시인 신경림』, 사람이야기, 2017, pp.42-43),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서 심부름한 일(신경림, 『바람의 풍경』, 문이당, 2000, p.54.)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8) 신경림, 『진실의 말 자유의 말』, 문학세계사, 1988, pp.55-56.

29) 신경림, 위의 글, pp.88-89.

땅도 우리 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통일지향의 문학이란 민족적 동일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민족적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한다.’³⁰⁾고 주장했는데, 통일문학에 대한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이 『달 넘세』의 휴전선 연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의 “원수들”을 찾아내고(「열림굿 노래」), “서로 찌르고 쏘는 형제들이 다시” 손을 잡고(「꿨았네」) “휴전선 그 반은 네가 허물고/ 나머지만은 내가 허물”(「승일교 타령」)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 연작들에서 신경림은 남과 북이 본래 “하나”였음을 강조하고, 남북이 화해하여 외부 세력을 몰아냄으로써 분단 이전 “하나”로 돌아가자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통일문학에 대한 신경림의 지향을 읽을 수 있다.

신경림이 『달 넘세』에서 보여준 휴전선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는 이념적 공간이기보다, 외부 세력에 의해 하나였던 민족공동체가 갈라지게 된 훼손된 장소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³¹⁾ 휴전선을 바라보는 시적 주체는 ‘우리’를 ‘나’와 ‘너’로 갈라놓은 ‘원수’를 몰아내고 본래의 ‘우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남북의 화해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혼령’들, 즉 전쟁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주검들로 뒤덮인 휴전선이라는 장소는 남북이 화해를 하는 순간 더 이상 훼손된 장소가 아닌 혼령들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경림이 훼손된 장소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곧 남북 간의 ‘화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0) 신경림, 위의 글, pp.56-57 참고.

31) “휴전선을 떠도는 혼령을 다룬 시편에서 이념적인 경계를 뒤흔들어 좌우 이념의 차이를 연기시키고 무화시킨다.” 강정구·김종희, 「문학지리학으로 읽어본 1980년대 신경림 시의 장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117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p.321.

Ⅲ. 수몰에 의한 터전의 상실과 실존 위기의 고향

『달 넘세』에는 수몰된 지역들을 소재로 한 시가 여러 편 실려 있다. 신경림은 충주댐 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고향인 남한강 지역이 수몰되는 과정과 고향을 상실한 이들의 삶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러한 경험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시들이 수몰 현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에서 재현된 장소 상실의 과정과 인물들의 상실감은 화자의 담담한 어조에 실려 전달되는데, 감정을 최대한 절제한 어조는 실향의 아픔이 더 고조되게 하는 효과를 얻었다.

신경림의 시에 나타나는 수몰고향의 로컬리티를 연구한 송지선은 고향의 수몰을 ‘국가가 산업화를 앞세워 행사한 폭력’이며, 수몰고향 시는 ‘권력과 중심의 시각에서 배제되어 온 수몰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작품으로 형상화된 것’³²⁾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충주댐 건설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정부가 주도했는데, 이때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대 등 광범위한 지역이 수몰되었다.³³⁾ 이로 인해 해당 지역민들은 일상적 삶의 근거지로서의 땅이자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을 잃었다. 그러나 『달 넘세』에 등장하는 지역민들은 수몰 상황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댐 건설 뒤에 거대한 국가 권력이 작동하고 있었기에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던 지역민들은 어떠한 저항도 실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32) 송지선, 「신경림 시에 나타난 수몰고향의 로컬리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0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p.233.

33) 충주댐은 1978년에 착공하여 1985년 완공되었다. 댐 건설로 66.48km²가 수몰되었으며, 이 건설을 위해 단양은 단양읍 전체와 3개면 26개 리가, 제천은 5개면 61개 리가 수몰되었는데, 특히 청풍면은 전체 27개 리 중 25개 리가 물에 잠겼다. 수몰 이주민은 총 4만 9627명으로, 이들을 위해 곳곳에 수몰 이주 단지 및 단양 신도시가 건설되기도 했다.

고향을 상실했으나 밖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못한 채 수몰 지역민들은 실존의 위기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 년 후면 이 산길 강길 고갯길이/ 물에 잠긴다 한다./ 폴도 나무도 / 돌도
고달픈 황아장수 발자국도/ 물에 잠긴다 한다./ 취해 부르던 구성진 유행가
가락도/ 남이 알세라 주막집 여편네와의 해우채 시비도/ 건잡을 수 없던 제
여편네의 바람기도 물에 잠긴다./ 모두모두가 까맣게 잊혀질 것이다.

- 「강길 1」 부분

별정우체국도 단위농협 창고도/ 부서진 채 굳게 문이 잠겨 있다./ 내년이면
물이 차리라 한다./ 이곳 모두가 허허바다가 된다.// 우리들 삶과 사랑의 애길
들어줄 이/ 이제 아무도 없으려나./ 검은 바위와 늙은 나무에 무딘 칼로 새겨진
/ 우리들 누님들의 투박한 이름/ 보아주는 이 오직 늙은 용왕뿐이려나.

- 「귀향일기초」 부분

『달 넘세』에 나타나는 수몰 관련 시들은 ‘수몰 전’, ‘수몰 진행’, ‘수몰 이후’의 이야기로 각각 구분되면서 수몰되는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달 넘세』에서는 이렇게 구분되는 수몰의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내면의식을 보여주고 있어, 고향이라는 고유의 장소와 그 장소의 상실에 대한 신경림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시 두 편은 앞으로 다쳐올 수몰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삶의 한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강길 1」에서 그려지는 인물은 화자의 “소학교 동창”인 황아집 장수이다. 황아장수란 담배쌈지나 바늘과 실 같은 일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파는 사람이다. “그”가 자전거에 싣고 다니는 물건들은 “철 지난 잡물건”으로 전을 벌여놓아도 구매자가 거의 없어 하루하루의 삶이 남루하고 고달프다.³⁴⁾ 이러한 일상 속에서도 황아장수는 “일년이

34) 송지선은 “황아장수”는 고향과 완전한 동일시를 이루며, 황아장수의 일상에 나타나는 ‘황아집, 고갯길, 강길, 철 지난 잡물건, 백축 전등, 산 및 외딴집’을 따라가며 로컬의 일상이 얼마나 탈중심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면 만리”나 되는 길 위에서 자신의 삶을 꾀꾀하게 이어간다. 그것은 그에게 매일 나무에 나와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요,³⁵⁾ 길가의 돌과 나무가 그러한 것처럼 그의 “발자국” 역시 길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황아장수 삶의 대부분은 그가 밟아온 길 위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길은 이미 “그” 자신이 된 것이다.

그런데 길 위의 삶을 사는 그에게 “이 년 후” 수몰이라는 위기가 닥친다. 그러나 이 위기에 대한 불안이나 긴장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황아장수의 삶을 담담하게 들려주는 화자는 “그”에게 닥친 수몰이라는 위기 상황이 “그”의 일상과 앞으로 그가 꾸려갈 미래라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고달픈 황아장수의 발자국”과 “구성진 유행가 가락”, “주막집 여편네와의 해우채 시비”와 “견잡을 수 없던 제 여편네의 바람기”가 물에 잠기는 것과 그로써 모든 것이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라고 말할 뿐이다. 여기에는 삶의 터전을 잃는 데 대한 불안과 생활에 대한 걱정이 제외되어 있다. 대신 화자는 “그”가 겪었을 부부 관계의 어긋남에 대해, “그”가 취해 부르던 유행가 가락에 대해서만 짧게 언급할 뿐이다. 이는 화자가 언급한 부분이 강조된 것이라기보다,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언급되지 못한 것들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인다. 비극적인 사실을 주관적 감정을 배제한 채 담담한 어조로 말함으로써 오히려 비극미를 강화시키는 것처럼 말이다.

송지선, 앞의 논문(2016), p.227.

35) 넷째 연을 보면 황아장수인 “그”와 무당인 “그의 아내”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는 주막집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해우채, 즉 화대 시비를 벌였으며, “그의 아내”의 바람기도 견잡을 수 없다고 한 화자의 발언에서 그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아내는 저녁마다 나무에 나와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은 또 아내와 함께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조는 「귀향일기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 시는 귀향 직후 고향에서 과거에 가졌던 장소감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1연과 닥쳐올 수몰 상황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2연으로 나누어져 있다. 화자가 고향에 도착한 현재의 시선에 지난날의 삶이 새겨진 장소로서의 신작로와 술도가 뒤뜰이 들어온다. 이 추억의 장소는 2연에서 보여주는 별정우체국과 단위 농협 창고, 그리고 누나들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등과 함께 화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과거를 직조했던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했던 곳이다. 화자는 이러한 장소들이 1년 뒤 물에 잠기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수몰 이후에는 이들 장소뿐 아니라 장소에 새겨진 과거의 기억들까지 소멸될 수 있음을 염려한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자신의 추측을 가볍게 묻는 형식의 종결어미 “~려나”를 2회 반복 사용함으로써, 무심한 태도로 수몰상황을 바라보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수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무력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수몰되기 1~2년 전의 시간을 다룬 시들은 고향을 잃을 처지에 놓인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기보다 장소상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준다. 즉 자신들의 장소인 고향을 잃는 것은 그 장소에서 자신들이 꾸려온 삶 전체를 잃는 것이며, 이는 그 장소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몰 상황을 앞두고 있는 주민들에게서 수몰 상황에 대한 어떤 거부 의 몸짓이나 저항적 태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몰이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36) 장소는 생활 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장소는 의미, 실제 사물, 계속적인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의 중요한 원천이며 때로는 사람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느끼는 인간 실존의 심오한 중심이 된다(에드워드 텔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pp.287-288).

장소를 상실한 주민들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 집이 물에 잠겨도/ 잃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 한다/ 보상금 받아 도회지로
 나가 방을 얻고/ 논밭일 발똥대서 오히려 꿈이 크다 <...> 물살에 밀려 돌이
 구르듯/ 어차피 한평생 그렇저렇 가는 거라고/ 강물은 공동묘지를 돌아 흐르고
 / 제일차 수물선을 넘실대며 흐르고/ 얼룩진 한세월을 품에 안고 흐른다
 - 「강물 2」 부분

새침이 지났는데도 장이 서지 않는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버스가 멎고/
 고추부대 몇자루가 내려와도/ 사람들은 고살에 모여 해장집 의자에 앉아/ 더
 오르리라는 수물보상금 소문에/ 아침부터 들떠 있다/ 농협창고에 흰 페인트로
 굵게 그어진/ 1972년의 침수선 표시는 이제 아무런 뜻도 없다/ 한 반백년쯤
 전에 내 아버지들이 주머니칼로 새겼을/ 선생님들의 별명 또는 이웃 계집애들
 의 이름이/ 흰 티처럼 붙어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들만이/ 다시는 못 볼 하늘을
 향해 울고 있다/ 학교로 올라오는 물에 잠길 강길을 굽어보며/ 학교 마당을
 좁게 매운 채 울고 있다

- 「강길 2」 전문

「강물 2」에 등장하는 “아낙”과 “큰놈”은 화자의 오촌 당숙의 딸과 그의
 아들로 화자와는 친척 관계에 있으나 화자는 인물들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객관적으로 그려낸다. 화자가 들려주는 아낙의
 삶은 “방 두 칸 함석집”이라는 장소와 “잃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는 아낙
 의 말을 통해 유추 가능하듯 궁핍으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처지 때문에
 아낙은 자신의 집이 수몰로 사라지고, 자신과 가족들이 가꾸어온 삶이 송
 두리째 사라진다는 사실에도 걱정이나 불안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힘
 든 농사일에서 벗어나고 보상금으로 도회지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
 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를 지배했던 “얼룩진 한세월”의 슬픔이 미래
 에 대한 불안보다 더 컸으며, 수몰이라는 장소상실이 주는 불안감이나 상
 실감보다 어머니의 부재와 아버지의 죽음과 지독했던 가난이 이들에게 더
 고통이었음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이 시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 도회지로 나감으로써 농사일에 서 벗어나는 꿈을 꾸고 연속극을 보며 아들과 함께 웃는 모습이 이들의 일상에 내재되어 있는 장소상실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을 보여준 반어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아낙과 아들이 연속극을 보면서 웃는 모습을 제시하는 5연의 첫 행에서부터 “강물은 해발 구십 미터/ 제일차 수물선”이 넘실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에서 수물민들의 상실감이 명징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물선이 넘실대는 바로 그 순간과 “연속극”의 사랑놀음과 그것을 보고 웃는 수물민들의 행동이 연결어미 ‘-고’로 대등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시에서 보여주는 ‘웃는 행동’과 ‘큰 꿈’은 수물민의 상실감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강길 2」에서는 장소상실에 대한 상실감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첫 행에서부터 일상적 삶이 빠져나가 버린 수물지역의 피폐한 현상이 제시된다. 장이 서지 않고, 고추부대는 장꾼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대신 수물민들은 보상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 소문에 마음이 들떠 있다.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보상금이 올라야 도회지로 나가서 방이라도 얻고 가솔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학교로 올라오는 물에” 곧 잠기게 될 고향땅에 대해, 그리고 곧 잊혀질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슬퍼하고 아쉬워할 여력이 없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생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시의 9행에 이르면 수물민들의 장소상실에 대한 상실감과 정주지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데 대한 불안이 ‘울음’의 형태로 드러난다. 내면의 감정을 터뜨리는 주체는 수물민들이 아니다. 그것은 학교 마당에서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들이다. 울고 있는 플라타너스는 학교 교정을 이루는 조경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 나무들은

“내 아버지들”과 그들이 좋아했던 계집애들, 선생님들과 보낸 소중한 추억의 또 다른 이름이며, “다시는 못 볼 하늘을 향해” 우는 나무들의 울음은 모두가 함께 만들었던 시간을 잃게 된다는 상실감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따라서 플라타너스의 울음은 곧, 고향을 상실한 모든 수몰민들의 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달 넘세』의 수몰 지역을 소재로 한 시들에서 “보상금”(「강물 2」, 「강길 2」)에 대한 수몰민들의 기대감만을 보면 수몰되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과거가 잊히게 되고, 삶의 정주지에서 떠나야 하는 상실감은 어느 정도 보여주었으나, 「강길 2」 외에는 수몰민들의 아픔이나 상처 등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런데 수몰 연작시 중 수몰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남한강의 어부 -청풍에서」의 화자 발언은 수몰이 낳은 결과가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된다.

매일 조금씩 물에 밀리다가/ 마침내 산중허리까지 쫓겨올라와서/ 움막을
 쳤다// 밤마다 바다처럼 넓어진 강에 나가/ 주낙을 치지만// 건져올리는 건/
 잉어도 눈치도 메기도 아니다// 달려올라오는 건/ 이 고장 사람들의 깨어지고
 찢어진/ 꿈의 조각들뿐이다// 잘난 사람들 서울사람들한테/ 밟혀서 짓몽개진/
 꿈의 조각들뿐이다

- 「남한강의 어부 -청풍에서」 전문

위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수몰된 지역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다. 다시 말하면, 물에 잠긴 고향 마을 위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어부의 일상을 전하는 화자는 수몰지역 주민들의 꿈이 깨어지고 찢어졌다고 전하면서, “잘난 사람들 서울사람들”에게 밟히고 짓몽개진 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 화자의 이런 발언을 참고하면, 보상금으로 이루게 될 새 삶에 대한 수몰민의 꿈이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강물 2」와 「강길 2」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감과 불안을 직접 드러내지 않은 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것마저 “짓뭇개”져 버린 것이다. 수몰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장소를 잃고 결국 실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 충주댐 사업이 마무리되고 예정된 지역이 모두 물에 잠기고 나서야 이와 같은 비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수몰민들이 잃어버린 장소 ‘고향’은 개인의 의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지평 가운데 있다. ‘나’의 의식 가운데 있는 고향의 실체는 과거적인 것으로 그것에는 관습과 전통, 그리고 옛 풍물 등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다³⁷⁾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시들에서 화자가 떠올리거나 혹은 바라보는 고향의 모습은 화자의 시선에 포획된 현재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과 일상적 체험 속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통과 옛 풍물을 돌이킬 수 없는 수몰민들에게 고향은 영원히 소멸된 장소로 남게 된다.

수몰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더욱 문제적인 것은 수몰된 땅이 조상 대대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우리’의 삶의 장소였다는 점이다.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나’는 개별자인 동시에 ‘우리’로 존재한다. ‘우리’가 결국 공동체의 구성원인 ‘나’와 ‘너’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공동체적 삶의 장소인 고향은 곧 ‘나’의 뿌리요 정체성이 되며, 공동체가 훼손될 경우 ‘나’ 역시 훼손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 장소의 수몰은 곧 개인적 삶의 수몰과 동일시되며, 수몰의 끝에서 개인의 정체성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달 넘세』의 수몰 소재 연작시는 단순히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공동체가 가꾸어온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잃고, 그로 인해 공동체적 삶 속에서 형성된 각 개인의 정체성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37) 전광식, 『고향』, 문학과지성사, 1999, p.41.

IV. 산업화에 의한 지역 소외와 파편화된 로컬 공간

195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전국이 비교적 고른 산업생산을 보였으나 1960년대 이후 30여 년 만에 지역 격차가 극심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의 지역 격차는 선진국 사례에서 보기 드문 극심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국가의 주도에 의한 30~40년 동안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이 압축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³⁸⁾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도 문제적이었으나, 더 심각한 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였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촌락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지다 못해 나중에는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자 결국 자신들의 고유한 장소인 집과 마을을 버리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게 된다.

촌락민들이 국가의 산업화 정책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떠나기 전 ‘촌락’을 이루고 살던 로컬 공간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사는 데 불과하나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농업사회 시대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해 온 생활공간이었으며, 민속 의례·신앙 등 전통적인 우리 문화를 간직해 온 문화의 공간이다.³⁹⁾ 따라서 로컬 공간이 버려지고 잊혀진다는 것은, 수물 지역민들의 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거기 뿌리내리고 살아왔던 촌락민들의 삶뿐 아니라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전통적인 문화와 그것에 깃든 의미와 가치가 버려지고 잊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⁰⁾

38) 전중환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사회평론, 2017, pp.485-486 참고.

39) 전중환 외, 위의 책, pp.171-174 참고.

40) 전광식은 ‘오늘날처럼 구조화되고 사회화된 고향 상실의 역사적 배경에는 ‘근대화’가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 중국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이 자본주의화의 과정 속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뒤, 거의 1세기 가량 지녀오던 우리 언어와 고유 전통문화가 결국 소멸되어 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전광식, 앞의 글, pp.83-88).

그러므로 『달 넘세』의 인물들이 정주하던 로컬 공간을 떠나는 것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달 넘세』에는 신경림 시인이 국내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사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행 시편들이 연작시 형태로 실려 있다. 이들 시편은 신경림 시인이 민요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을 여행하던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신경림은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진도, 지리산, 주천, 정선, 줄포 등 전국의 많은 지역을 여행했으며,⁴¹⁾ 그곳에서 소외된 지역민들의 파편화되어 가는 삶을 목격했다.

산과 물이 지켜워 아우라지 뱃사공의 아내는/ 세 아들딸을 두고 대처로 떠났다./ 아우라지 뱃사공은 산과 물이 싫다./ 산과 물을 좋아하는 대처 사람이 싫다./ 종일 배를 건너 손에 쥐는/ 천원 안팎의 돈 그것이 싫다./ 세상이란 잘난 사람들끼리 그저/ 잘난 놀음으로 돌아치는 곳./ 그를 가엾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는 싫다.

- 「아우라지 뱃사공 -정선에서」 부분

이 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어는 “싫다”이다. “그” 자신이 터 잡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될 고향 “아우라지”⁴²⁾는 배를 저어 생계를 이어

41) 이재무는 신경림이 민요기행을 시작할 당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는데,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수단이 민요기행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신경림이 장시 『새재』의 내용과 형식에서 민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편, 일본 시와 서구 시의 영향력이 우리 시에 대한 열등감을 조장한 측면이 있어 그러한 풍토 개선을 위해 민요를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신경림·이동순·이재무, 『신경림 문학 앨범』, 웅진출판, 1992, pp.64-65 참고).

신경림은 산문집 『다시 하나가 되라』에서 경남 창녕, 충남 예산, 강원 정선, 전남 진도, 전북 줄포, 그리고 철원, 여주, 익산, 제천, 충무 등등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신경림, 『다시 하나가 되라』, 어문각, 1986, pp.229-232 참고), 이 지역들은 『달 넘세』에 실린 기행시들의 장소와 일치한다.

42) ‘아우라지’는 강원도 정선군의 지명으로 골지천과 송천 두 물줄기가 어우러져 한강을 이루는 데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또한 ‘아우라지’는 이곳에 있는 나무터를

가는 뱃사공에게 더없이 중요한 장소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 시에 등장하는 뱃사공은 아우라지의 산과 물, 그리고 정선아라리의 가락이 싫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눈도 싫고 얼마 안 되는 수입도 싫다고 한다. 이처럼 뱃사공이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삶의 터전인 아우라지가 더 이상 그 자신에게 참된 장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곧 에드워드 랠프가 말한 ‘인간답다’는 의미에서 배제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랠프에 의하면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⁴³⁾ 뱃사공의 경우 아우라지는 의미를 상실해 버린 장소이다. 그의 아내가 산과 물이 싫다며 대처로 떠나기 전에는 가난하지만 아들, 딸과 함께 아우라지에서 장소감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구호미”를 받아서 생활할 만큼 지독한 가난뿐인 아우라지에서의 삶은 아내를 대처로 떠나게 만들었고, 이 가정은 파편화되어 버렸다. 아내가 떠난 뒤 아우라지의 산과 물은 뱃사공에게 더 이상 장소감을 가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뱃사공 가족들이 겪고 있는 가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난이 단지 민중에게 결핍에서 오는 고통만을 안겨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상황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평화로운 한 가정을 해체시켜 버린다는 데 있다.

가족 공동체를 훼손시킨 그 가난은 뱃사공 가족의 무능함이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당시 국가가 주도했던 산업화 정책에 의해 농촌과 어촌 같은 로컬 공간이 철저히 소외됨으로써 심각한 지역 격차가 발생했고, 이 격차가 심화되면서 뱃사공과 같은 지역민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

일컫기도 한다.

43) 에드워드 랠프, 앞의 글, p.25.

어나지 못 했던 것이다. 이 가난은 한 가정은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문화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마을을 파편화시켰다. 한 여행자의 시선에 포착된 전북 줄포의 황폐한 모습에서 국가 정책의 불균형이 나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멀리 뺏어나간 갯벌에서/ 어부 둘이 걸어오고 있다/ 부서진 배 뒤로 저녁놀
이 발깁다 / 갈대밭 위로 가마귀가 난다 // 오늘도 고향을 떠나는 집이 다섯/
서류를 만들면서/ 늙은 대서사는 서글프다/ 거리엔 찬바람만이 불고 이젠/
고기 비린내도 없다// 떠나고 버려지고 잃어지고……/ 그 희뿌연 폐항 위로/
가마귀가 난다

- 「폐항 -줄포에서」 전문

이 시의 화자는 “줄포”⁴⁴⁾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줄포의 현재는 본래적 장소성을 상실해버린 폐항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항구로서의 줄포는 수시로 고깃배가 드나들고, 선창에서는 고기를 사고파는 사람들의 북적임과 진동하는 갯비린내로 인해 생명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나, 주민들이 떠나가는 그곳은 고향과 항구라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채 “부서진 배”와 “가마귀”라는 시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암울한 분위기만 남아 있다.⁴⁵⁾ 이러한 분위기는 줄포가

44) 항구 ‘줄포’를 소재로 한 또 다른 시는 기행시집 『길』(창작과비평사, 1990)에 실린 「줄포 -농사꾼 대서쟁이 김장순 씨에게」이다. 이 시에서는 폐항의 암울하고 파편화된 현재를 보여주기보다 “착하게 사는” 태도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폐항 -줄포에서」와는 달리 (로컬 공간에 대한 복원은 아니더라도)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희망을 읽을 수 있다. 송지선은 「줄포 -농사꾼 대서쟁이 김장순씨에게」에 드러나는 “착한” 성품은 자본 축적의 실패를 가져오며, 자본의 가치에 밀려 인간의 공동체적 삶에서 가장 소홀한 대접을 받게 되지만, 로컬인들이 “착한” 것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실천하며, 그것을 하나의 로컬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송지선, 「신경림 시의 로컬리티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13, p.108).

45) “장소와 공동체의 관계는 경관에 표출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경관은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모든 경관 요소들이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 즉, 건물, 거리, 퍼레이드,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시의 1연에서는 폐항의 모습이 희미하게 제시되나, 2연에 이르면 “찬바람”만 부는 거리와 사라진 “비린내” 등에서 폐항으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구체화되고 감각화되어 제시된다. 특히 “비린내도 없”다는 화자의 발언은 ‘지금, 여기’가 항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곳임을 명징하게 드러낸다.

이처럼 1-2연에서 황폐해진 폐항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고 주고 있으나, 정작 「폐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3연이다. 고향인 줄포를 떠나는 주민들의 ‘이주’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버려지고 잃어”짐으로써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은 농촌과 어촌을 철저히 소외시켰는데, 그 결과 경쟁력이 없는 줄포와 같은 항구들은 자본으로부터 배제되고 잊혀지고 중내에는 항구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잃고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게 된 것이다. 이 시가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 역시 쓸쓸한 폐항으로서의 줄포가 아니라, 산업화 정책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삶의 터전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로컬 공간을 대표하는) 한 마을의 모습일 것이다.

신경림은 민요 채록을 위해 우리나라의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수많은 지역 사람들을 만났으며, ‘아우라지’와 ‘줄포’의 인물들을 통하여 국가의 산업화 정책에서 소외된 로컬 공간에서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파편화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장소의 상실이 단지 생활공간, 삶의 터전을 잃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은 물론 오랜 세월

마을 축구팀, 이 모든 것은 공동체를 단결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드러낸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경관의 상징이나 메시지는 <…> “집단적으로 규정된 장소 의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이 장소 의식은 같은 장소 출신의 사람들에게 그 장소 자체가 지닌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부여하며, 그 역도 성립한다.” 에드워드 켈프, 앞의 글, p.87.

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던 한 마을을 해체해버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V. 결론

모든 인간의 삶은 그 삶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의식이나 행위 등도 인간이 거주하는 사회공간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나 장소를 보면 그곳에 새겨진 인간의 삶과 그 장소들이 기억하고 있는 문화와 전통, 역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신경림의 『달 넘세』에 나타나는 ‘휴전선’, ‘수몰 지역’, ‘로컬 공간’을 소재로 한 시에서도 그 장소들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장소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시는 모두 연작시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 연작시라는 형식은 시인의 특별한 창작 의도 혹은 지향이 전제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들 시가 내장하고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은 곧 『달 넘세』에 담긴 신경림의 시적 의도나 시적 지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유형의 연작시에 나타나는 각각의 장소성과 장소 상실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장소의 상실이 개인의 삶, 혹은 공동체의 삶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파악한 뒤, 장소 상실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장소에 대한 연구는 각 장소의 특성에 따라 세 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II장에서는 한국의 남북 분단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서의 ‘휴전선’을 살펴보았다. 『달 넘세』에서 보여준 ‘휴전선’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보다 훼손된 공동체 공간으로

서의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고유의 장소성이 훼손된 휴전선을 바라보는 시적 주체는 비록 과거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있기는 하나, 그것을 극복하고 분단 이전의 ‘우리’, 즉 삶의 공동체 회복을 주장하면서, 훼손된 장소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인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분단의 원흉인 원수를 몰아내고 남북이 ‘화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Ⅲ장에서는 1980년대에 국가 주도의 댐사업으로 인해 수몰되어버린 ‘수몰 지역’이 가진 장소성과 장소상실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수몰이 진행되기 전(前) 주민들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고향에 대해 참된 장소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간 국가 권력에 저항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다만 1~2년 뒤 영원히 잊히게 될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쓸쓸한 감정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수몰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울음’이라는 형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상실감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잃은 장소가 실존을 가능케 하는 근거지였을 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우리들’의 고향이었다는 점이다. 공동체적 삶의 장소인 고향은 ‘나’의 뿌리요 정체성이며 공동체가 훼손될 경우 ‘나’ 역시 훼손을 피할 수 없기에, 공동체 장소의 수몰이 곧 ‘나’의 수몰과 동일시되면서 상실감이 ‘울음’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달 넘세』의 수몰 소재 연작시는 단순히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잃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공동체가 가꾸어온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잃는 것이며, 그로 인해 공동체적 삶 속에서 형성된 각 개인의 정체성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Ⅳ장에서는 신경림 시인이 민요를 채록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면서 쓴 기행시에 나타나는 장소로서의 ‘아우라지’와 ‘줄포’, 그리고 그 장소에 깃들여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시인이 여행에서 만난 장소들은 국가의 산업화 정책에서 소외된 곳으로, 도시와의 심각한 격차를 보여주는 로컬

공간이었다. 이들 장소는 촌락민들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었으나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촌락민들은 자신들의 장소인 집과 마을을 버리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게 된다. 신경림은 로컬 공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촌락민들의 아픔과 버려진 장소를 통해 국가의 산업화 정책에서 소외된 로컬 공간에서의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파편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특히 ‘아우라지’와 ‘줄포’가 장소성을 상실해가는 모습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장소 상실이 단지 생활공간과 삶의 터전을 잃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은 물론 오랜 세월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 가던 한 마을도 파편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경림은 『달 넘세』에서 훼손되고 파편화된 장소를 제시하는 한편, 장소 상실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까지도 파괴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달 넘세』가 내장하고 있는 핵심적 의미는 장소의 ‘상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 「하나가 되라, 다시 하나가 되라」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달 넘세』에서 제시하는 장소 회복의 길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즉 ‘우리’라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⁴⁶⁾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회복이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서로 갈라지고, 댐 건설로 뿔뿔이 흩어지며, 산업화로 파편화되어 버린 ‘우리’의 회복, 즉 우리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말한다. 집단이 해체될 경우 개체들은 집단적 기억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다.⁴⁷⁾ ‘우리’가 파편화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

46)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는 『달 넘세』의 후반부에 실린 「하나가 되라, 다시 하나가 되라」이다. 이 시에서 신경림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옛날 그 옛날의 고구려 적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신경림은 『달 넘세』를 발간한 다음 해에 자선수필집을 발간하는데, 이 책의 제목 역시 『다시 하나가 되라』(신경림, 어문각, 1986)이다. 이 책은 이웃과 고향과 세시풍속 등에 대해 쓴 것으로서, ‘다시 하나가 되라’고 하는 신경림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47) 일라이다 아스만, 앞의 글, p.175.

와 문화의 기억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라지고 흩어진 ‘우리’의 재건이 요구되는데, 신경림은 『달 넘세』에서 훼손되고 파편화된 장소들, 즉 집과 마을과 휴전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 넘세』에 나타나는 장소는 이전에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장소의 변화는 곧 현실 세계에 대한 신경림 시인의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농무』를 포함한 초기시에서는 농촌, 공사장, 장터, 도시 변두리 등을 통해 민중이 겪는 아픔과 분노를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자본과 권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참된 장소의 회복에 대한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달 넘세』의 휴전선, 수몰 지역, 로컬 공간을 통해서는 장소 상실감뿐 아니라 남과 북, 마을, 가족이 본래 하나였던 것처럼 다시 하나가 되어 ‘우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이처럼 신경림 시에 나타나는 주요 장소의 변화는 신경림 시인의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신경림, 『달 넘세』, 창작과비평사, 1985.

2. 논문 및 단행본

고재봉, 「신경림의 「농무」 계열 시에 나타난 장소성과 축제의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4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pp.267-293.

구중서 외 엮음, 『신경림 문학의 세계』, 창작과비평사, 1995.

닝왕, 이진호·최석호 역,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강정구·김중희, 「문학지리학으로 읽어본 1980년대 신경림 시의 장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117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pp.315-336.

강정구·김중희 「문학지리학으로 읽어본 신경림 문학 속의 농촌 -1950-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56집(16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pp.5-23.

박순희·민병욱, 「신경림 시의 장소 연구 -시집 『農舞』를 중심으로」, 『배달말』제54집, 배달말학회, 2014, pp.251-275.

송지선, 「신경림의 「쇠무지벌」에 나타난 로컬리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57집(16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pp.145-159.

송지선, 「신경림 시의 로컬리티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13.

송지선, 「신경림 시에 나타난 장소 재현의 로컬리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64집(18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pp.161-180.

송지선, 「신경림 시에 나타난 수물고향의 로컬리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20집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pp.215-237.

신경림, 『한밤중에 눈을 뜨면』, 나남, 1985.

신경림, 『다시 하나가 되라』, 어문각, 1986.

신경림, 『진실의 말 자유의 말』, 문학세계사, 1988.

신경림 외, 『신경림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신경림, 『사람 사는 이야기』, 세림, 1995.

신경림, 『바람의 풍경』, 문이당, 2000.

신경림·이동순·이제무, 『신경림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 유병관, 「신경림 시집 『농무(農舞)』의 공간 연구」, 『반교어문연구』제31집, 반교어문학회, 2011, pp.218-239.
- 이경자, 『시인 신경림』, 사람이야기, 2017.
-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 임덕순, 「한국 휴전선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제7집 1호, 대한지리학회, 1972, pp.4-10.
- 일라이아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 전광식, 『고향』, 문학과지성사, 1999.
- 전중환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사회평론, 2017(개정 3판).
- 조효주, 『신경림 시의 주체와 현실』, 역락, 2018.
- 조효주,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노래』에 나타나는 장소와 장소상실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제7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pp.241-266.
- P. Vidal de la Blache 지음, Emmanuel de Martonne 엮음, 최운식 옮김, 『인문지리학의 원리』, 교학사, 2002.
- 박상일, 『충주댐 수물 마을사』, 충주댐수물마을사편찬위원회(2001. http://jecheon.grandculture.net/Contents?local=jecheon&dataType=01&contents_id=GC03300434).

Abstract

Placelessness and Reality Perception of Shin Kyung-lim's poetry

- Mainly focused on 『Leap Over the Moon』 -

Jo, Hyo-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Shin Kyung-lim's perception of the real world revealed through damaged places and characters who lost places, by identifying how 'placelessness' in Shin Kyung-lim's 『Leap Over the Moon』 relates to lives of individuals or community. This paper focused attention on the works written in the form of serial poetry in 『Leap Over the Moon』, and examined distinct places appeared in serial poetry such as 'Cease-fire Line', 'Submerged Districts' and 'Local Places' that were excluded from industrialization. These places show a new percep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perception Shin Kyung-lim previously showed through places. As existing studies have shown, Shin Kyung-lim has specifically reproduced the lives of the public through places, while showing a negative perception on capital and power in early poetry including 『Nongak Dance』. However, 『Leap Over the Moon』 identified 'Cease-fire line, submerged districts, local places' as the places where the damaging identification of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and fragmentation of life are proceeded, while requesting damaged places, 'South and North', 'Hometown', and 'Home' to become 'one' again by restoring to the status before the fragmentation, and this showed Shin Kyung-lim's perception of the potential for restoring places. Like this, it can be observed that the change of place in poetry is interlinked with the change of Shin Kyung-lim's perception of the real world.

Key Word: Space, Cease-fire Line, Submerged Districts, Local Space, Living Place, Hometown, Identity

조효주

소속: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nook-2@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02월 10일 투고되어
2020년 03월 0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3월 11일 게재 확정됨.

